

정책자료 04-03

#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鄭在完 · 金完仲 · 權耿德

## 국문요약

ASEAN+3(한·중·일)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인구 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 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달러화대비 지역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 세계 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규모 역시 2003년 현재 3조 1,915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총교역의 20.77%를 차지하고 있다. ASEAN+3 지역의 총교역이 규모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東아시아경제의 뚜렷한 회복세와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을 들 수 있다. 東아시아국가들이 대외개방과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9.11테러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었고 이라크전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여파와 같은 악재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ASEAN+3 지역(東아시아)의 역내 경제여건은 크게 호전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겪어 오던 일본경제가 최근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는 경기조절 움직임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AN 역시 AFTA 효과에 의한 역내 교역증가, 농업부문 호황, 전 세계 정보통신(IT) 업종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 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못하던 東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체제로의 전환, 냉천체제의 붕괴,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 확대 등을 배경으로 역내 국가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1997년 발생한 東아시아 외환위기는 지역협력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 중국

과 일본 정상이 초청됨으로써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하게 되었다.

ASEAN+3 협력체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인 역내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99년 필리핀 회의에서의 「ASEAN+3의 東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 채택과 ASEAN+3 정상회담의 정례화 선언 이후 ASEAN+3 정상회담은 東아시아에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9개 분야의 장관급 회담은 실질적인 통합을 실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東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東아시아 내 경제협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ASEAN+3 지역에 대한 교역은 2003년 현재 총교역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특히 2002년과 2003년 중국과의 교역은 각각 30.4%와 38.6% 증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ASEAN은 2003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한국의 제5대 교역대상지역으로서 교역규모가 387억 달러, 총교역액의 11%대를 차지하고 있다. ASEAN+3 지역은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 양질의 노동력 및 광대한 소비시장 등 좋은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기준)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또 ASEAN은 중국, 미국, EU에 이어 제4위의 해외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였다. ASEAN+3 지역은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분야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상원조는 우리의 전체 지원규모의 21%가 이 지역들에 집중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전체의 42%인 8억 1,508만 달러가 이 지역들에 지원되고 있다.

# 제1장 ASEAN+3의 경제 현황

## 1. ASEAN+3의 경제적 위상

- ASEAN+3(한·중·일)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1〉 ASEAN+3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3년 기준)**

	면적	인구	GDP	1인당 GDP	상품수출	상품수입
	천km <sup>2</sup>	백만 명	십억 달러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싱가포르	0.65	4.4	91.4	22,962	1,579	1,285
태국	513	62.6	143.3	2,291	784	742
말레이시아	330	24.7	103.2	4,175	1,050	793
인도네시아	1,920	214.5	208.5	972	390	390
필리핀	300	81.5	80.4	987	348	361
브루나이	5.8	0.4	4.7	12,971	44	13
베트남	327	81.1	39.0	481	195	216
라오스	237	5.6	2.0	362	4	5
미얀마	680	53.5	9.6 <sup>1)</sup>	179 <sup>2)</sup>	24 <sup>3)</sup>	20 <sup>3)</sup>
캄보디아	180	13.6	4.2	310	18 <sup>3)</sup>	23 <sup>3)</sup>
중국	9,600	1,293	1,411.0	1,092	4,385	4,131
일본	378	127.6	4,301.4	33,717	4,491	3,418
한국	99	48.1	605.0	12,585	1,981	1,750

주: 1) IMF에 의한 시장환율 평가, 2) EIU 추정치, 3) 2002년 통계.

자료: ASEAN Statistics Unit; EIU; GlobalInsight; IMF 등을 토대로 작성.

- ASEAN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통해 단일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음.
  - ASEAN+3는 2003년 현재 인구 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 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함.
- ASEAN+3의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1996~2000년 동안의 21.3%와 2001년, 2002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나, 東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기위축과 지역통화의 약세,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지속, 달러화 및 유러화의 강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1-2〉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세계에서의 비중(1996~2003년)**

	1996~2000		2001		2002		2003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ASEAN	597.3	1.97	545.3	1.75	605.5	1.87	676.0	1.86
한중일	5,865.0	19.35	5,814.8	18.66	5,780.5	17.82	6,325.1	17.42
ASEAN+3	6,462.3	21.32	6,360.1	20.41	6,386.0	19.68	7,001.1	19.28
NAFTA	9,884.6	32.60	11,437.8	36.71	11,865.6	36.57	12,483.8	34.38
E U	8,413.2	27.75	7,935.9	25.47	8,667.7	26.71	10,508.1	28.94
세 계	30,317.6	100.00	31,154.4	100.00	32,446.2	100.00	36,309.6	100.00

자료: GlobalInsight (2004c).

- ASEAN+3의 교역규모는 2003년 현재 3조 1,915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총교역의 20.77%를 차지함(표 1-3 참고).
- ASEAN+3 지역의 총교역은 규모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東아시아경제의 뚜렷한 회복세와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東아시아 국가들이 대외개방과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함.

〈표 1-3〉 주요 경제권역별 총교역규모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8~2003년)

총교역	1998		2000		2003	
	십억 달러	비중(%)	십억 달러	비중(%)	십억 달러	비중(%)
ASEAN	599.0	5.48	804.3	6.20	920.6	5.99
한중일	1,320.9	12.10	1,785.1	13.75	2,270.9	14.78
ASEAN+3	1,919.9	17.58	2,589.4	19.95	3,191.5	20.77
NAFTA	2,297.3	21.04	2,850.4	21.96	2,824.5	18.38
E U	4,073.6	37.30	4,468.3	34.43	5,552.1	36.14
세계 전체	10,920.7	100.00	12,979.5	100.00	15,364.7	100.00

자료: IMF (2004)

## 2. ASEAN+3 역내의 경제 동향

- ASEAN+3(東아시아)지역은 1997년 중반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1998년부터 본격화된 강도 높은 경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는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각종 개혁조치와 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을 통해 同 지역 경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9.11테러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었고 이라크전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여파와 같은 악재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東아시아의 역내 경제여건은 크게 호전되고 있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겪어 오던 일본경제가 최근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는 경기조절움직임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ASEAN 역시 AFTA효과에 의한 역내 교역증가, 농업부문 호황, 전 세계 정보통신(IT)업종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1-4> ASEAN+3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태 국	4.8	2.1	5.4	6.8	6.4	6.6
말레이시아	8.9	0.3	4.4	5.3	6.8	6.0
인도네시아	4.9	3.8	4.3	4.5	4.8	5.2
필리핀	4.4	1.8	4.3	4.7	5.5	5.5
싱가포르	10.1	-1.9	2.2	1.1	8.1	4.2
브루나이	2.8	3.0	2.8	3.2	4.0	2.4 <sup>2)</sup>
베트남	6.1	5.8	6.4	7.1	7.5	7.6
라오스	5.8	5.8	5.9	5.8	6.5	7.0
미얀마 <sup>1)</sup>	13.7	11.3	5.0	5.1	-	-
캄보디아	7.0	5.7	5.5	5.2	4.5	2.3
ASEAN	6.3	1.9	4.4	4.8	6.2	5.7
중 국	8.0	7.3	8.0	9.1	8.8	8.0
한 국	8.5	3.8	7.0	3.1	4.4	3.6
일 본 <sup>2)</sup>	2.8	0.4	-0.4	2.5	4.5	2.3

주: 1) ASEAN Secretariat 통계, 2) GlobalInsight 통계.

자료: ADB (2004b);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ASEAN Secretariat; GlobalInsight (2004c).

- 반면 최근과 같은 국제고유가기조가 지속될 경우 원유수입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가불안, 기업비용증가, 영업이익 감소, 세수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음.

-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東아시아 국가들의 CPI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금리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됨.
- ADB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아시아의 GDP 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지고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 〈표 1-5〉 ASEAN+3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1~96 (연평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싱가포르	6,858	13,533	7,594	13,245	12,464	10,949	7,655
태 국	1,964	3,882	7,491	6,091	3,350	3,813	1,068
말레이시아	5,436	6,323	2,714	3,895	3,788	554	3,203
인도네시아	2,985	4,678	-356	-2,745	-4,550	-3,279	-1,523
필 리 핀	1,226	1,261	1,718	1,725	1,345	982	1,111
브루나이	210	702	573	748	549	526	1,035
베 트 남	1,217	2,587	1,700	1,484	1,289	1,300	1,200
라 오 스	53	86	45	52	34	24	25
미 얀 마	256	879	684	304	208	192	129
캄보디아	120	168	243	230	149	148	54
중 국	25,476	44,237	43,751	40,319	40,772	46,846	52,700
일 본	890	3,225	3,192	12,742	8,323	6,243	9,326
한 국	1,234	2,844	5,412	9,333	9,283	3,528	1,972

자료: UNCTAD (2003)

- 외환위기 이후 ASEAN+3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기준) 유치는 중국으로의 대량유입 덕분으로 전체적인 면에서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하면 1999년과 2000년을 전후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정치안정을 통한 개혁정책의 순조로운 추진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인해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의 부진과 정정불안 등으로 인해 FDI는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 제2장 ASEAN+3 회원국의 국별 경제 동향

### 1. ASEAN

#### 가. 싱가포르

-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싱가포르경제는 개방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배경으로 연평균 8.5%의 실질 GDP 증가율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왔으나, 2001년 이후에는 테러위협에 따른 미국경제의 침체와 세계 전자산업의 수요부진 등 대외경제여건의 급변과 SARS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맞이함.
  -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싱가포르경제는 각각 -1.9%, 2.2%, 1.1%의 저성장세를 유지함.
- 싱가포르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다소 회복되었으며, 2004년 들어 반도체와 디스크드라이브 생산 증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2004년 8월 리셴룽(李顯龍) 총리체제로의 정권이양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함에 따라 경제성장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고축동(吳作棟) 前 총리는 그동안 경제사정이 좋을 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2004년 1/4분기와 2/4분기의 경제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자 8월 12일 총리직을 공식 이양함.
- 싱가포르는 최근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과 완전한 대외개방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대(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FTA정책에 따라 일찍부터 AFTA에 참가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경제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본격 추진함.
- 2004년 상반기까지 싱가포르는 뉴질랜드를 비롯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EFTA 등과도 차례로 FTA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 바레인, 파나마, 이집트, 스리랑카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싱가포르경제는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생산증가와 수출호조, 세계경제여건의 개선 등으로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경제의 반등, 일본의 장기불황 탈출, 중국의 고도성장세 지속 등에 따른 수출입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의 호조가 예상되어, 싱가포르경제는 당초 예상치(3~5%)보다 훨씬 높은 8%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05년에는 특히 중국의 경기속도 조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가 위축, 4%대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1.9	2.2	1.1	8.1	4.2
CPI 상승률	"	1.0	-0.4	0.5	1.8	1.6
(상품)수출증가율	"	-10.5	2.7	15.0	15.0	7.5
(상품)수입증가율	"	-13.7	-0.5	9.4	17.5	10.0
경상수지/GDP	"	18.7	21.4	30.9	27.0	25.0
평균 환율(싱가포르달러/달러)		1.8	1.8	1.7		
외환보유고	억 달러	758.0	822.8	963.2		

자료: ADB (2004a);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싱가포르경제는 독립 이후 이어져온 고도성장세의 지속과 東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멘텀의 필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외개방경제체제와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추구, 독립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싱가포르경제는 인구증가율 둔화, 세계화의 확대, 중국의 성장, 東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대내외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등 전환기에 처해 있음.

## 나. 태국

- 태국경제는 농업 관련 산업과 외국인투자에 의한 제조업, 그리고 관광부문이 주도하는 서비스업이 고르게 발전한 것이 특징임.

**〈표 2-2〉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2.1	5.4	6.8	6.4	6.6
CPI 상승률	"	1.6	0.7	1.8	2.8	2.6
(상품)수출증가율	"	-7.1	4.8	18.6	20.0	8.0
(상품)수입증가율	"	-3.0	4.6	17.1	27.0	8.0
경상수지/GDP	"	5.4	5.5	5.6	4.0	4.0
평균 환율(바트/달러)		44.46	42.97	41.55	40.15	39.70
D. S. R.	%	20.8	19.6	15.0	13.5	14.0

자료: ADB (2004a);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현 탁신 총리 집권 이후 태국은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와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2003년에는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의 수출호조, 관광객 유입 증가,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東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함.

- 특히 탁신 총리가 주도하는 FTA정책으로 태국은 2004년 8월 호주와의 FTA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인도, 일본, 미국, 중국, 페루, 바레인, 멕시코 등과의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태국은 단기적으로는 고유가기조와 태국 남부에서 있었던 무슬림과의 갈등 등 정치·경제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대규모 방콕 신공항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재정지출부담이 예상됨.
-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태국경제는 각종 경제예측기관의 전망과 같이 2004년에도 6%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3년 수출증가가 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듯이 2005년에는 호주와의 FTA, 인도와의 조기 자유화품목 확대, 일본과의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EPA) 체결 등의 교역호재가 있어 교역확대가 예상됨.
  - 2005년 초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태국은 경제적 실적을 배경으로 탁신 총리의 재집권이 예상되고, 이후 대외개방 가속화, 성장산업 육성 등 집권 2기의 경제정책이 주목됨.

#### 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경제는 2001년 0.3%라는 저조한 성장 이후 꾸준히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은 민간 및 정부소비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데, 2003년 5.3% 성장 중 3.5%포인트가 소비증가에 의한 것임.
  -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함께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는 부진한 상태임.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과 함

게 세계경기 호조와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있음.

- 2003년도 제조업부문 매출액이 8.2% 증가한 데 이어 2004년 들어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부문의 매출액이 2004년 5월에 전년동월대비 19.7%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전년동월대비 22.1% 증가하면서,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함.
- 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1%대로 안정되어 있음.

### 〈표 2-3〉 말레이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0.3	4.4	5.3	6.8	6.0
CPI 상승률	"	1.4	1.8	1.1	1.5	2.2
(상품)수출증가율	"	-10.6	6.1	12.4	14.6	9.4
(상품)수입증가율	"	-10.3	8.1	5.4	17.5	10.6
경상수지/GDP	"	8.3	8.4	12.9	7.8	7.0
평균 환율(링기트/달러) <sup>1)</sup>		3.8	3.8	3.8	3.8	3.8

주: 1) Globallnsight.

자료: ADB (2004a); Globallnsight (2004a).

- 말레이시아는 주수출품목인 전자부품과 팜오일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인력의 질적 향상을 중장기 중점경제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인도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들에 대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정부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확대되고 있는 수출수요 및 민간소비에 힘입어 2004~05년 말레이시아경제는 5.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라. 인도네시아

- 1997년 東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경제는 투자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고 소비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3년의 4.5% 성장 가운데 민간 소비지출에 의한 성장이 2.8%포인트에 달함.
    - 그러나 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국내고정자본 형성은 GDP의 30% 이상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25%로 축소됨.
- 최근 인도네시아경제는 정부의 내수진작책에 힘입어 2003년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의 판매가 25% 증가하는 등 내수부문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음.
- 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바, 2002년 이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부터 한 자릿수로 안정되고 있음.
- 반면 투자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바, 자본재에 대한 투자는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18%나 감소함.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04년 들어서도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음.
- 수출액의 경우 오일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침체된 내국민의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치적 안정 확보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 등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이 급선무임.
  - 또한 대외부채가 GDP의 64%에 달하고 있는 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4년도 목표성장률을 5.4%로 잡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부진 등으로 예년과 같은 4.5%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표 2-4〉 인도네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3.8	4.3	4.5	4.8	5.2
CPI 상승률	"	11.5	11.9	6.6	6.5	7.0
(상품)수출증가율	"	-12.3	3.1	7.2	3.5	3.5
(상품)수입증가율	"	-14.1	2.8	10.9	4.0	4.0
경상수지/GDP	"	4.8	4.5	3.6	3.4	3.1
평균 환율(루피아/달러) <sup>1)</sup>		10,266	9,319	8,576	8,843	8,458
Debt/GDP1)	%	94.9	76.0	63.8	56.4	47.7

주: 1) GlobalInsight

자료: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GlobalInsight (2004b)

#### 마. 필리핀

- 필리핀경제의 특징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빈곤층 확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취약한 제조업 기반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임.
- 2000년 이후 세계경제 불황과 이상기온으로 인해 성장세가 1.8~4.3%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업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이 증가하여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아로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정치불안요소가 사라져 대외신인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아로요 대통령의 재선은 외환시장 안정, 외자유입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필리핀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현안으로는 재정적자문제를 들 수 있음.
  - 필리핀의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2.3%로 아시아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정적자문제와 함께 전력공사 등 공공부채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필리핀경제의 경쟁력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약 60%에 달하는 빈곤층문제 해결, 부정부패, 반군, 테러, 납치 등 치안불안문제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안임.

**〈표 2-5〉 필리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1.8	4.3	4.7	5.5	5.5
CPI 상승률	"	6.1	3.1	3.1	5.2	5.5
(상품)수출증가율	"	-16.2	10.0	1.4	10.0	10.0
(상품)수입증가율	"	-4.5	6.2	6.3	7.0	7.0
경상수지/GDP	"	1.9	5.7	4.2	3.0	2.8
평균 환율(페소/달러)		50.99	51.60	54.20	55.49	56.52
D. S. R.	%	15.8	16.4	16.1	19.0	18.0

자료: ADB (2004a);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필리핀은 최근 양호한 기후조건이 지속, 농업생산량이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AFTA 출범 역시 필리핀의 수출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2004년에는 5% 이상의 성장이 기대됨.

-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부담 증가와 정부지출 축소가 불가피하여 내수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바. 브루나이

- 브루나이경제는 석유 및 가스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바, 석유 및 가스가격의 변동이 경기변동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브루나이 정부는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양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음.
  - 그리고 수출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은 ASEAN에 주로 의존하는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2-6〉 브루나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3.0	2.8	3.2	4.0	2.4
CPI 상승률	"	0.6	-2.0	1.0	1.2	1.8
(상품)수출증가율 <sup>1)</sup>	"	-3.1	1.6	16.2	N/A	N/A
(상품)수입증가율 <sup>1)</sup>	"	7.2	36.2	-17.0	N/A	N/A
평균 환율(브루나이달러/달러) <sup>1)</sup>		1.79	1.79	1.73	1.70	1.66

주: EIU

자료: ADB (2004b); Globalinsight (2004c); EIU (2004a).

- 최근 유가상승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브루나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석유수출이 전년대비 17.2% 증가했으며 가스수출도 13.9% 증가함.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비석유 및 가스부문의 수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브루나이 정부는 비석유 및 가스부문의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브루나이경제는 향후에도 석유 및 가스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제유가 및 가스가격 변동 추이가 브루나이경제 변동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임.
  - 다만 非석유 및 가스부문 활성화를 위해 브루나이 정부가 계획 중인 국제항 및 산업공단 건설 등이 추진될 경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향후 정치적 불안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브루나이경제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 베트남

-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 큰 내수시장, 안정된 물가와 환율,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최근 10여 년간 평균 7%가 넘는 GDP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SARS의 발생과 대외경제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003년에도 7.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산업생산액 증가율은 과거 3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인 16%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사상 최대의 작황을 기록한 농업부문을 비롯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03년 제조업 및 건설업의 GDP 비중이 40%, GDP 성장 기여도가 53%로서 공업화 및 산업화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대외무역은 세계 원자재가격 상승, 투자활성화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확대 등을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베트남은 최근 주요 투자국인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과 각각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또는 개정)하였고, 이중가격제 폐지 등 투자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2004년과 2005년 베트남경제는 민간소비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하여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투자, 수출, 민간소비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표 2-7〉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5.8	6.4	7.1	7.5	7.6
CPI 상승률	"	-0.4	3.8	4.0	9.0	6.0
(상품)수출증가율	"	6.5	7.4	16.5	16.3	12.0
(상품)수입증가율	"	6.0	19.5	27.0	15.0	11.0
경상수지/GDP	"	1.5	-2.8	-5.8	-4.1	-4.1
평균 환율(동/달러)		14,725	15,280	15,732		
D. S. R.	%	10.6	8.3	8.3	7.5	7.3

자료: ADB (2004);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베트남은 2005년 말을 목표로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경제 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01~05년간 5개년 경제개발계획, 2001~10년간 10개년 개발계획 등 경제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반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과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르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개혁의 폭과 속도가 너무 좁고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유기업의 주식화, 자본 시장 육성,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음.
  - 총리 직속의 □□국유기업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는 총 1,272개의 국유기업이 정리되었으나, 아직 베트남에는 총고정자산의 70% 정도인 4,296개의

국유기업이 존재함.

- IMF도 2004년 8월 베트남의 경제개혁정책을 평가하며, 베트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략적 분야에 대한 정부보호의 축소, 국유상업은행을 포함한 대규모 국유기업의 주식화 가속,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등을 제시함.
  - 특히 IMF는 베트남의 국유상업은행의 개혁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였으며, 베트남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국유은행 및 국유기업의 취약점 보완, 민간투자환경의 개선, 정책의 투명성 강화, 2005년까지 WTO 가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국제경쟁력의 취약성, 기술부족과 부품 및 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한 원자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낮은 외화가득률,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아. 라오스

- 라오스 경제는 태국 등 주변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온 관계로 東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를 심각하게 받았음.
- 라오스의 무역구조는 인접한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1997년 당시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라오스 전체 수출의 65%를 점하고 있으며, 수입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함.
  - 라오스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태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조업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바트貨의 급격한 절하에 따라 라오스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많이 사라졌고 FDI 유입도 대폭 감소됨.
  - 또한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대외원조로 이를 보전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외원조 급감이라는 시련을 맞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라오스경제는 정치적 안정과 인접국과의 교역호조 등을 배경으로 연간 6%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 반면 두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지속, 만성적인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재정적자 지속,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라오스는 최근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를 탈피하고 인플레이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라오스경제는 농업부문의 호조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등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궤도에 진입, 향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표 2-8〉 라오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5.8	5.9	5.8	6.5	7.0
CPI 상승률	"	7.8	10.7	15.5	12.4	10.0
(상품)수출증가율	"	-3.3	-6.9	19.5	22.5	4.5
(상품)수입증가율	"	-4.7	-12.4	7.9	16.2	1.8
경상수지/GDP	"	-4.6	-2.3	-0.3	-2.0	-1.6
평균 환율(킬/달러)		8,871	10,056	10,619		
D. S. R.	%	7.2	8.3	6.8	-	-

자료: ADB (2004a);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라오스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자본조달을 위한 환경조성 및 민간저축의 확대, 국영기업 개혁, 세수기반 확충 및 세출 합리화, AFTA 가입 및 메콩江유역개발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개발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자. 미얀마

- 미얀마는 무역자유화와 국경무역 활성화 및 외자 유치 등의 대외개방 정책, 국유기업의 민영화 및 민간경제의 활성화, 금융개혁, 관광산업 증진 등을 추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함.
  - 미얀마는 경제개발 초기단계, 미개발자원 풍부, 저임양질의 노동력 풍부, 인구 5,35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높음.
  - 반면 군부독재와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Embargo)가 지속되고 있고 고립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개혁 추진과 경제성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9〉 미얀마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4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실질 GDP 증가율	%	11.3	5.0	5.1	
CPI 상승률	"	21.1	57.1	36.6	
(상품)수출(fob)	억 달러	23.2	29.2	23.7	
(상품)수입(fob)	"	25.9	20.8	18.8	
경상수지	"	-3.09	2.99	-1.06	
(공식)평균 환율(차트/달러)		6.7	6.6		
(시장)평균 환율(차트/달러)		620	970	960	
D. S. R.	%	2.9	3.5	5.1	

자료: ADB (2004a); ADB (2004b); ADB EIU (2004b).

- 미얀마경제는 1994년 이후에는 기후안정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호조에다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호텔·관광업 등에 대한 외자진출의 활발과 그에 따른 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됨.
  - 특히 1999년에서 2001년까지는 10%가 넘는 고성장을 이룩하였는

데, 이는 야다나(Yadana)에서의 천연가스 본격 생산, 수출호조를 배경으로 한 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활황세를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조, 수송망 개선,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생산호조에 따른 상업부문의 활성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주변 동남아국가들과 비슷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 중심이고 제조업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대외 무역은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자유화와 함께 증가하여 왔으나, 외자업체의 진출 및 현지 제조업의 미비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이후 미얀마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부진, 미국의 엠바고 강화, 국영 및 민간부문의 산업생산 저조, 2003년 2월 발생한 민간 시중은행의 예금인출사태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미얀마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의 적자 등을 들 수 있음.
  - 중단기적 관점에서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는 우선 경제안정화를 위한 과제로서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여야 하고, 가격자유화, 금융시장 정비, 국유기업 개혁, 민간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의 정비가 미얀마경제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차. 캄보디아

- 오랜 내전과 정정불안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캄보디아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정국안정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캄보디아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제개방정책으로 성장을 이룩해왔지만 다소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리한 대외환경, 즉 선진국 수입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FDI 유치, 선진국의 활발한 공여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 1998년 1% 성장에 불과하였던 캄보디아경제는 국제사회의 원조재개, 의류수출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00년에는 7.0% 성장한 바 있음.
- 반면 2001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캄보디아경제는 메콩강 홍수로 인한 농업부문의 부진, 미국의 경기하강에 따른 의류수출 부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총선에 따른 정정불안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발생함으로써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졌음.
- 2004년 7월 연립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캄보디아는 1년여의 정국불안을 극복,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제사회의 지원 재개, 부진했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가속화, 지연되고 있는 WTO 가입 비준 등이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실제 캄보디아 신정부는 최근 WTO 가입 비준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정부의 국가전략, 즉“성장, 고용, 형평과 효율성을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과 이를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을 척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실천계획(Action Plan)을 발표함.
  - 사각전략과 Action Plan 및 WTO 가입에 따른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과 투자환경의 개선 등은 캄보디아경제가 성장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캄보디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는 이러한 경제개발전략과 WTO 가입 등을 발판으로 중장기

적으로 연평균 6~7%의 고도경제성장을 시현하고자 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가용자원 동원의 한계, 상반기 동안의 FDI 유입 부진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5%대 이하의 성장을 시현할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MFA의 쿼터 폐지로 경쟁력이 약한 캄보디아 섬유 및 봉제산업은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 저하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표 2-10〉 캄보디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5.7	5.5	5.2	4.5	2.3
CPI 상승률	"	0.3	3.3	1.1	2.3	3.0
(상품)수출증가율	"	12.1	11.4	16.9	20.3	-7.6
(상품)수입증가율	"	8.0	10.5	12.5	18.5	2.9
경상수지/GDP	"	-9.2	-8.9	-10.2	10.0	-11.2
평균 환율(리엘/달러)		3,916	3,912	3,973		
D. S. R.	%	3.8	3.3	3.0	3.1	3.7

자료: ADB (2004a);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캄보디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으로는 먼저 빈곤퇴치를 들 수 있음.
  - 현재 전체 인구의 43%가 UN이 정한 최저생계선(1일 1달러 이하 생활)을 밑돌고 있으며, 1일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의 78%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임.
- 또한 연립정부 수립에 수반한 정부 고위직의 양산, 상원의장의 축출과 같은 권력게임의 상존과 후유증 지속, 부정부패의 심각,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한 섬유쿼터제 폐지(2005년 1월 예정)에 따른 캄보디아 봉제산업(캄보디아경제의 40% 차지)의 위기 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

## 2. 한·중·일

### 가. 한국

-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 및 투자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음.

**〈표 2-11〉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3.8	7.0	3.1	4.4	3.6
CPI 상승률	"	4.1	2.7	3.6	3.8	3.0
(상품)수출증가율	"	-14.0	7.9	20.9	33.0	13.0
(상품)수입증가율	"	-13.4	7.7	18.1	27.0	16.0
경상수지/GDP	"	1.7	1.0	2.0	3.9	3.1
평균 환율(원/달러) <sup>1)</sup>		1,292	1,251	1,192	1,156	1,104

주: 1) GlobalInsight

자료: ADB(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GlobalInsight(2004a).

- 東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증가 → 투자증가 → 고용증가 → 소득증가 → 내수확대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수출증가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수출 증가가 IT를 중심으로 한 소수품목에 크게 의존한 데 기인함. 한국의 IT산업의 경우 원부자재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경제는 2003년 다시 침체로 돌아섬. 2004년의 경우도 성장세가 높아지지는 않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신용대란 이후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함. 또한 성장세를 보

- 였던 건설부문이 침체된 것도 경기부진의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부문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소폭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유가급등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액(도착 기준)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 200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으나 2004년 들어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및 투자부진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성장추세가 유지되고 유가가 안정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04~05년 한국경제는 4%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나. 중국

- 중국은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경제체제개혁의 심화,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구조의 도시화,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른 경제성장 원동력의 활성화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2003년 9.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국제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약해짐에 따라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중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

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일부 산업의 과열과 생산과잉으로 부실 채권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임.

- 또한 공업부문에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지속되는 반면 교육, 의료, 부동산 등 독점 및 공익분야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수요증가를 제약하는 문제도 있음.

### 〈표 2-12〉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7.3	8.0	9.1	8.8	8.0
CPI 상승률	"	0.7	-0.8	1.2	3.4	4.9
(상품)수출증가율	"	6.8	22.4	34.6	22.0	16.0
(상품)수입증가율	"	8.1	21.3	39.8	30.0	20.0
경상수지/GDP	"	1.5	2.8	3.2	-0.1	-1.4
평균 환율(위안/달러)		8.3	8.3	8.3	8.3	8.3

자료: ADB (2004a); ADB (September 200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 중국경제는 2003년 9% 이상의 높은 성장률에 이어 2004년에도 9% 대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위안貨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러貨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2004년 이후 중국의 교역은 수출증가율 둔화, 수입증가의 양상을 보일 것이며 투자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일본

- 일본경제는□□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2002년까지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었으나 최근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GDP 증가율은 2001년 -1.2%에서 2002년에는 1.1%로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2003년에는 3.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IT 호황기인 2000년도의 3.0%를 초과하여 거품붕괴 이래 1996년(3.6%)에 이은 고성장을 시현함.
- 경기회복의 기폭제는 수출로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이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됨.

**〈표 2-13〉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전망)	2005(전망)
실질 GDP 증가율	%	0.4	-0.3	2.5	4.7	2.5
CPI 상승률	"	-0.8	-0.9	-0.2	-0.5	0.0
(상품)수출증가율	"	-6.1	7.9	10.1	13.3	5.6
(상품)수입증가율	"	0.2	1.9	5.0	8.9	6.4
경상수지/GDP	"	2.1	2.9	3.2	3.5	3.3
평균 환율(엔/달러)		121.5	125.2	115.9	107.0	101.4

자료: GlobalInsight (2004b).

- 2004년 1/4분기에도 5.6%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어 국내소비가 증가하였고 설비투자, 수출, 주택투자도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최근의 회복세는 대기업 및 제조업 주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나 이러한 현상이 지방경제, 나아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3년 이후 東아시아경제의 회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수출확대

가 지속될 전망이고 경기회복의 한 축인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임.

# 제3장 ASEAN+3 협력체제<sup>1)</sup>

## 1. 추진배경

- 東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 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東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은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음.
- 1980년대 후반, 즉 냉전체제 붕괴 이후 東아시아에서의 국가관계는 정치·안보적 이슈보다 경제적 이슈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음.
-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체제로의 전환은 東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는 물론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표 3-1〉 세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건수(2000년)**

	1958~70	1971~80	1981~90	1991~95	1996~2000
신규	6	14	10	49	76
누계	6	20	30	79	155

자료: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통상마찰이 점차 심화되고, 동시에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가 확산되자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국가들의 노력이 확대되어왔음.
- 다자주의협상의 지연에 따른 FTA의 경쟁적 체결 확산 및 지역주의 불참의기회비용 증가가 지역주의를 경쟁적으로 확산시키는 주요 요

1) 권율·정재완·권경덕(2003. 9.) 참고.



인으로 작용함.

-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제안으로 1990년 제기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는 1993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합의된 바 있으나,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된 바 있음.
- EAEC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심의 아태 경제 질서보다는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으로 독자적인 입장을 갖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왔음.
  - 특히 ASEAN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강화로 지역정세의 안정화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동아시아 유일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치·경제적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또한 경제적으로는 통합체로서 AFTA를 결성하여 교역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결집력을 활용하여 역외국과의 대화체제를 강화함.
    - 특히 ASEAN 지역포럼(ARF, 1994년 창설) 및 ASEAN 확대외무장 회담(ASEAN PMC)을 통해 주변국 및 세계 주요국과의 협상력을 확대함.
- 이러한 가운데 ASEAN 주도로 ASEM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EU의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아시아국가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ASEM은 1994년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제안, 아시아 10개국(당시 ASEAN 회원국과 한·중·일)과 유럽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1996년, 태국 방콕)함.
- 무엇보다도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지역협력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협력차원에서 역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동질성을 확인하게 됨.
  -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온 APEC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와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동아시아□□지역 개념이 부각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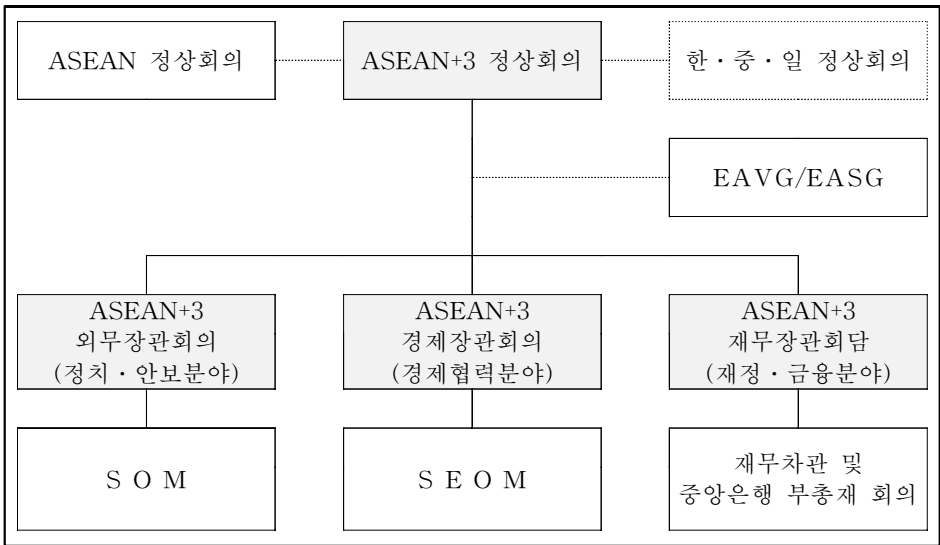
- 이에 따라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 중국과 일본 정상이 초청됨으로써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하게 됨.

## 2. 추진 현황

-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매년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2000년부터는 외무장관회담, 경제장관회담, 재무장관회담 등 주요 장관회담을 정례화하여 역내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실무차원에서도 장관회담과 관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 Meeting: SOM)가 개최되어 주요 의제 및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재무차관회의 등 다각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역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어 왔음.
  - ASEAN+3 협력체제의 진로와 협력과제에 대해 한국 주도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 등이 설립되어 활동함.
  - 또한 EASG 협력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12월 동아시아포럼(EAF)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
- 한편 1999년 한-중-일 정상은 3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간 경험증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함.

- 2000년 11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또 경제장관회의도 매년 개최함.
- ※ 관련 장관회담: 농림장관회담(2001), 노동장관회담(2001), 관광장관회담(2002), 환경장관회담(2002), 보건장관회담(2003).

〈그림 3-1〉 ASEAN + 3 협력체제의 주요 현황



자료: 권율·정재완·권경덕(2003. 9)

### 가. 정상회의

-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간차원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구성되어 역내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함.
- ASEAN,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에서 각 2인씩의 저명인사를 추천, 학자·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총 26명의 비전그룹 위원(대표: 한승주 前 외무장관)이 선임됨.
- 비전그룹 설치에 동아시아 지역협의체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적인 구상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 총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2001년 브루나이 ASEAN +3 정상회담에 보고하였고, 경제, 금융, 정치, 환경, 사회·문화, 제도적 협력 등 6개 부문에 대한 협력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 EAVG 보고서의 경제분야 내용〉

- ▲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추진: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APEC의 보고르 목표(2010/2020) 이전에 추진하고, EAFTA 검토를 위한 각료급회의 개최
  - 역내 최빈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및 특혜조항을 고려
- ▲ FDI 확대를 위한 투자유인환경 조성: 東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및 중소기업의 투자증진과 행정·금융 지원체제를 수립
  - ASEAN 투자지역(AIA)을 東아시아 전체로 확대하여 東아시아 투자지역(EAIA) 설립
- ▲ 자원 및 인프라 공동개발 추진: 인프라, IT, 인적자원 개발 등 세 개 우선분야 지원 협력
  -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협력
- ▲ 신경제하에서 인적자원 배양과 東아시아 정보하이웨이, 역내 소프트웨어 기술 및 멀티미디어 센터 건립, 東아시아 벤처기금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을 활성화 추진
- ▲ 금융협력분야: 역내 차입협정과 환율공조체제 구축, 東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東아시아 통화기금(EAMF) 설립 추진

### 〈 東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 ▲ 東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의존 및 협력관계 증진
- ▲ UN헌장과 평화공존원칙 및 국제법 원칙 준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기초한 東아시아국가간의 상호 관계 증진
- ▲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확인하고, 東아시아 비전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東아시아 협력에서 대화과정 촉진
- ▲ 경제 및 사회분야
  - 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을 가속화하고, 정보·전자상거래의 기술협력과 중소기업의 강화를 장려하며, 민간의 참여 촉진, 위기개발방지를 위한 구조개혁에 공동노력
  - ② 통화금융협력: 정책대화와 조정 및 협력 강화로 거시경제 위험관리, 역내 자본이동 감시, 국제금융체제 개편, 자구지원 메커니즘 창출
  - ③ 사회개발·인재육성: 역내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인적자원 개발, 기금 설립에 의한ASEAN 인재육성 구상'을 실시
  - ④ 과학·기술개발
  - ⑤ 문화·인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
  - ⑥ 하노이 행동계획에 대한 지원
- ▲ 정치·기타분야
  - ① 정치·안전보장: 東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화와 조정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감
  - ② 영토문제: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강화
- ▲ WTO, APEC, ASEM 등 다양한 국제적·지역적 포럼과의 조화와 협력 강화
- ▲ 東아시아의 유대 강화와 금번 공동성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관계장관들을 통해 고위관리 및 기존 기구를 활성화하기로 함

## 〈 EASG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

### ▲ 단기협력사업

- 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및 특혜조치 부여
- FDI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설립
- 소성장지대의 자원, 인프라 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 장려
- 인프라, IT, 인적자원 개발, ASEAN 경제통합 지원 및 협력 제공
-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
- 통신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보급 확대
- 동아시아 think-tank 구축 등

### ▲ 중장기 및 추가적 검토사업

- 중소기업의 투자 증진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 역내 해양환경 협력 증진
-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
- 역내 금융기구 설립 등

- 그리고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3 정상 회의에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이 채택됨.
-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설립을 제안, 동아시아 협력 논의를 주도하기도 함.
  - 2001년 EASG가 발족되었으며, 2002년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EASG 최종보고서를 승인함.

- EASG 최종보고서에는 17개 단기협력사업, 9개 중장기 및 추가연구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나. 제6차 ASEAN+3 정상회의(2002년 11월, 프놈펜)

- 제6차 정상회의에서 東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보고서가 채택됨.
  - 同 보고서에는 한국 주도로 제안된 장기(9개)와 단기(17개) 등 26개 협력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ASEAN+3 정상회의를 장기적으로 “東아시아 정상회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기로 함.
  - 이는 ASEAN+3 정상회의 후 발표된 의장 성명 제20항에 포함됨.  
(The leaders expressed willingness to explore the phased evolution of the ASEAN+3 Summit into an East Asian Summit.)
- ASEAN과 韓·中·日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됨.
  - 특히 한·중·일은 ASEAN 회원국간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ASEAN 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구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IAI는 2000년 제4회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에 의해 제안되어 합의한 것으로, ASEAN의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발전격차 축소를 통해 신규가입국의 ASEAN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동시에 ASEAN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2002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되는 IAI는 인프라 확충(수송과 에너지), 인재육성(역량개발, 고용, 고등교육), 정보통신기술 육성, 지역경제통합 강화(재화 및 서비스교역, 관세, 투자, 표준화) 등 4개 분야 44개 프로젝트가 핵심사업임.
- 북핵문제 관련 역내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 지지 및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함.

- 북핵문제, 對테러 공조문제 관련 등을 의장성명서에 포함시킴.

#### 다. 제7차 ASEAN+3 정상회의(2003년 11월, 발리)

- 제7차 ASEAN+3 정상들은 2002년 채택된 東아시아 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함.
- ASEAN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IAI) 및 東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에 공감함을 표시함.
- 그리고 東아시아 차원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6자회의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함.

### 3. 추진성과 및 전망

- 東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활성화된 ASEAN+3(한·중·일) 협력체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인 역내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함.
- 특히 1999년 필리핀 회의에서의 「ASEAN+3의 東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과 ASEAN+3 정상회담의 정례화 선언 이후 ASEAN+3 정상회담은 東아시아에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 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분야 및 사회·문화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자리로 발전함.
  -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



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 그리고 9개 분야의 장관(경제, 재무, 외교 등)회담은 실질적인 통합을 실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東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ASEAN의 경제통합(AFTA의 결성)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東아시아 역내에서는 ASEAN+중국 FTA, ASEAN+일본 FTA, ASEAN+한국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04년 중반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는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과 말레이시아, 일본과 태국, 일본과 필리핀 등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향후 지역주의 추세는 가속화되어 장기적으로는 EU, 미주 및 東아시아 경제권의 3극체제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東아시아내 경제협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제4장 한국과의 경제관계

### 1. 교역

- 한국의 ASEAN+3 지역에 대한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 현재 총교역의 40%를 차지함.
  - 2003년 기준으로 수출비중은 37.5%, 수입비중은 42.9%를 차지함.
  - 이는 이 지역들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분업관계에 의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2002년과 2003년 중국과의 교역은 각각 30.4%와 38.6% 증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됨.
  
- 반면 ASEAN+3 지역과의 교역에서는 2000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ASEAN과의 교역에서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일 무역적자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1998년 54.6억 달러였던 對중 무역흑자는 2003년에는 132억 달러로 확대된 반면, 1998년 46억 달러에 불과하던 對일 무역적자는 2003년에는 190억 달러로 확대됨.
  
- ASEAN은 2003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한국의 제5대 교역대상지역으로서 교역규모가 387억 달러, 총교역액의 11%대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1993년 100.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202.5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수입의 경우 1993년 73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85억 달러를 기록, 150% 이상 증가함.

- ASEAN과의 총교역은 외환위기 직후 급감한 바 있으나, 2000년 383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4-1〉 한국의 주요국 및 지역과의 교역 현황(1998~2003년)

(단위: 억 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ASEAN	수 출	153.3	177.1	201.3	164.6	184.0	202.5
	수 입	91.4	122.5	181.7	159.2	167.6	184.6
	총교역	244.6	299.6	383.1	323.8	351.6	387.1
	수 지	61.9	54.6	19.6	5.4	16.4	17.9
중 국	수 출	119.4	136.8	184.5	181.9	237.5	351.1
	수 입	64.8	88.7	128.0	133.0	174.0	219.1
	총교역	184.3	245.5	312.5	315.5	411.5	570.2
	수 지	54.6	48.1	56.5	48.9	63.5	132.0
일 본	수 출	122.4	158.6	204.7	165.1	151.4	172.7
	수 입	168.4	241.4	318.3	266.3	298.6	363.1
	총교역	290.8	400.0	522.9	431.4	450.0	535.8
	수 지	-46.0	-82.8	-113.6	-101.2	-147.2	-190.4
ASEAN+3	수 출	395.1	472.5	590.5	511.6	573.0	726.3
	수 입	324.6	452.6	628.0	558.5	640.1	766.8
	총교역	719.7	945.1	1,218.5	1,070.6	1,213.1	14,931
	수 지	70.5	19.9	-37.5	-46.9	-67.1	-40.5
	교역비중	31.9	35.9	36.6	36.7	38.6	40.1
미 국	수 출	228.1	294.7	376.1	312.1	327.8	342.2
	수 입	204.0	249.2	292.4	223.8	230.1	248.1
	총교역	432.1	544.0	668.5	535.9	557.9	590.3
	수 지	24.1	45.5	83.7	88.3	97.7	94.1
	교역비중	19.2	20.6	20.1	18.4	17.7	15.8
E U	수 출	181.7	202.4	234.2	196.3	216.9	248.9
	수 입	109.3	126.3	157.9	149.2	171.1	193.8
	총교역	291.0	328.7	392.1	345.5	388.0	442.7
	수 지	72.4	76.1	76.3	47.1	45.8	55.0
	교역비중	12.9	12.5	11.8	11.9	12.3	11.9
전 세계	수 출	1,323.1	1,436.9	1,722.7	1,504.4	1,624.7	1,938.2
	수 입	932.8	1,197.5	1,604.8	1,411.0	1,521.3	1,788.3
	총교역	2,256.0	2,634.4	3,327.5	2,915.4	3,146.0	3,726.5
	수 지	390.3	239.4	117.9	93.4	103.4	149.9

자료: KOTIS

- 주요 교역상대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고 이 6개국과의 교역이 對ASEAN 교역의 97% 이상을 차지함.
- 무역수지는 東아시아 외환위기 직전 8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된 바 있으나, 최근 그 규모가 급감하고 있음.
  - 그동안 한국은 ASEAN과의 균형교역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무역자유화 노력을 추진한 바 있음.

〈표 4-2〉 한국의 對ASEAN 국별 총교역 현황(1994~2003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국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도네시아	5,382.6 (14.9)	6,283.1 (16.7)	7,211.1 (14.8)	7,648.0 (6.1)	4,841.9 (-36.7)	6,525.6 (34.7)	8,790.9 (34.7)	7,753.3 (-11.8)	7,868 (1.5)	8,590 (9.2)
말레이시아	3,527.7 (4.5)	5,466.1 (54.9)	7,339.5 (34.3)	7,639.0 (4.1)	5,812.5 (-23.9)	6,802.8 (17.0)	8,392.7 (23.4)	6,754.0 (-19.5)	7,259 (7.5)	8,101 (11.6)
싱가포르	5,811.7 (25.0)	8,857.5 (52.4)	8,966.1 (1.2)	8,213.7 (-8.4)	5,777.7 (-29.7)	7,233.5 (25.2)	9,371.1 (29.6)	7,091.1 (-24.3)	7,652 (7.9)	8,726 (14.0)
필리핀	1,624.2 (29.7)	2,103.9 (29.5)	2,487.3 (18.2)	3,313.6 (33.2)	3,639.5 (9.8)	4,287.4 (17.8)	5,174.5 (20.7)	4,354.4 (-15.8)	4,817 (10.6)	4,939 (2.5)
태국	2,454.9 (6.8)	3,363.0 (37.0)	3,882.9 (15.5)	3,526.4 (-9.2)	2,258.4 (-36.0)	2,802.4 (24.1)	3,646.1 (30.1)	3,437.4 (-5.7)	4,038 (17.5)	4,422 (9.5)
베트남	1,141.2 (39.4)	1,544.6 (35.3)	1,831.1 (18.5)	1,841.7 (0.6)	1,545.2 (-16.1)	1,709.4 (10.6)	2,008.5 (17.5)	2,117.4 (5.4)	2,710 (28.0)	3,072 (13.4)
브루나이	324.1 (14.5)	398.6 (23.0)	508.1 (27.5)	515.7 (1.5)	358.2 (-30.5)	296.4 (-17.3)	508.2 (71.5)	468.9 (-7.7)	489 (4.3)	531 (8.6)
라오스	-	-	9.9 (-)	8.7 (-12.1)	5.6 (-35.6)	12.2 (117.9)	5.1 (-58.8)	6.7 (33.9)	4 (-40.3)	8 (74.4)
미얀마	-	99.6 (-)	148.5 (49.1)	153.4 (3.3)	160.7 (4.8)	202.4 (25.9)	312.0 (54.2)	282.7 (-9.4)	199 (-29.6)	213 (7.0)
캄보디아	-	29.3 (-)	36.8 (25.6)	54.0 (46.7)	63.1 (16.9)	85.3 (35.2)	98.2 (15.2)	108.6 (10.6)	118 (8.6)	110 (-6.7)
對ASEAN 총교역	20,267 (16.7)	28,116 (38.7)	32,385 (15.2)	32,914 (1.6)	24,463 (-25.7)	29,957 (22.5)	38,307 (27.9)	32,375 (-15.5)	35,157 (8.6)	38,711 (10.1)
ASEAN 교역 비중	10.2	10.8	11.6	11.7	10.8	11.4	11.5	11.1	11.2	10.4

주: ( ) 안은 증가율.

자료: KOTIS

## 2. 투자

- ASEAN과 중국은 풍부한 천연자원, 양질의 노동력 및 광대한 소비시장 등 좋은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기준)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음.

〈표 4-3〉 한국의 對ASEAN+3 지역 투자 추이(1991~2003년, 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전 세계	중국	비중	일본	ASEAN	비중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1991	1,787	85	4.7	25	395	22.1	204	33	32	47	15	0	64	0
1992	1,963	223	11.4	43	266	13.6	67	34	33	23	6	101	0	2
1993	1,975	623	31.5	9	249	12.6	64	12	10	41	4	116	2	0
1994	4,049	825	20.4	96	559	13.8	81	26	170	92	4	179	2	2
1995	5,113	1,281	25.1	105	782	15.3	373	38	80	32	29	216	1	1
1996	6,670	1,954	29.3	57	768	11.5	219	70	66	91	75	201	5	10
1997	5,942	914	15.4	101	1,082	18.2	384	228	86	83	58	183	13	19
1998	5,820	895	15.4	24	739	12.7	95	113	24	97	291	108	4	2
1999	5,069	488	9.5	108	461	9.1	183	11	17	94	78	63	5	9
2000	6,010	960	16.0	140	717	11.9	111	42	12	186	210	98	19	9
2001	6,331	991	15.6	96	508	8.0	188	65	33	80	33	98	3	8
2002	6,245	2,036	32.6	92	622	10.0	90	42	12	47	50	371	2	8
2003	5,675	2,658	46.8	50	1,249	22.0	219	52	12	17	203	712	0	33

주: ASEAN은 브루나이의와 라오스에 대한 투자도 포함함.

자료: 수출입은행

- ASEAN에 대한 투자진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2~93년간은 중국 특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으며, 1994년 이후 다시 투자진출이 증가하였으나 東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으로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음.
  -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외환위기 직전까지 급격히 증대하였으며, 위기 이후 위축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해외투자대상국이고, ASEAN은 중국, 미국, EU에 이어 제4위의 해외투자대상지역임.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1990년대 중반 급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경제회복에 의해 다시 급증하기 시작, 2003년에는 26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함.
    - 이는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6.8%를 차지하는 규모임.
  - 한국의 對ASEAN 투자는 1990년대 초반 총해외투자의 20~30%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 10%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3년에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급증으로 ASEAN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는 총해외투자의 22%를 점유함.
    - ASEAN의 경우 1997년 투자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 2003년 역시 1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급감한 적도 있음.
- 국가별로는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ASEAN 지역에서는, 특히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최근 활발하여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3억 7,100만 달러와 7억 1,200만 달러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져 對ASEAN 투자의 60% 정도를 차지함.

### 3. 공적개발원조

#### 가. 무상원조

-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무상원조지원대상국으로, 한국은 1991~2003년간 총 1억 1,471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이는 한국의 전체 지원규모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의 경우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원조사업은 크게 확대되어 왔는데, 1997년까지는 중국에 이어 제2위의 수원대상국이었고 1998년부터는 최대 수원대상국으로 부상함.

**〈표 4-4〉 ASEAN+3 지역의 국별 무상원조지원실적(1992~2003년, 신고기준)**

(단위: 천 달러)

국 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베트남	316	995	2,281	3,361	3,472	2,662	3,127	6,193	4,880	4,814	4,700	3,515
인도네시아	1,240	1,143	1,564	1,232	1,690	2,162	1,526	1,903	1,984	1,939	2,544	2,613
필리핀	688	930	759	914	850	655	509	539	2,224	3,038	1,729	5,964
태 국	508	316	445	648	1,148	730	827	379	651	599	869	904
미얀마	203	290	393	627	890	379	551	466	730	651	1,406	1,460
캄보디아	-	30	8	11	241	1,803	301	297	637	1,057	1,467	2,341
라오스	6	11	1	67	437	825	216	297	629	681	1,262	2,048
브루나이	-	-	18	-	-	38	13	16	49	10	18,0	26
싱가포르	-	-	11	-	5	-	3	4	-	-	-	-
말레이시아	137	193	160	89	130	144	74	103	259	128	83	139
ASEAN	3,098	3,908	5,640	6,949	8,863	9,398	7,147	10,197	12,043	12,917	14,078	19,010
<b>비중(%)</b>	<b>16.6</b>	<b>18.1</b>	<b>19.8</b>	<b>18.9</b>	<b>21.5</b>	<b>21</b>	<b>23.2</b>	<b>33.1</b>	<b>31.4</b>	<b>27.5</b>	<b>23</b>	<b>15.3</b>
중 국	153	537	2,296	4,047	3,755	3,346	1,463	5,089	5,903	1,672	2,397	2,847
<b>비중(%)</b>	<b>0.8</b>	<b>2.5</b>	<b>8.1</b>	<b>11.0</b>	<b>9.1</b>	<b>7.5</b>	<b>4.8</b>	<b>16.6</b>	<b>15.4</b>	<b>3.6</b>	<b>3.9</b>	<b>2.3</b>
KOICA 협력사업비	18,639	21,488	28,465	36,662	41,210	44,597	30,710	30,716	38,287	46,861	61,085	124,089

자료: KOICA

- 중국의 경우도 1992년 양국간 수교 이후 한국은 무상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1999년과 2000년에는 전체 지원금액의 16.6%와 15.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지원하였으나, 2000년 이후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이 개시된 이후 ASEAN+3 지역에 대한 지원은 총 47건 8억 1,508만 달러로, 총 EDCF 19억 3,874만 달러의 42%를 차지함.
  - ASEAN에 대한 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이루어졌으며, 총 28건, 5억 5,718만 달러 규모임.
  - 중국에 대한 지원은 국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국 총 EDCF의 12% 규모임.
- 주요 지원분야: 통신망 구축,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 직업훈련원 개설, 병원 건설 등



〈표 4-5〉 ASEAN 지역에 대한 한국의 EDCF 공여 현황(∼2003년)

국 가	사 업 명	금액(백만 달러)	추진단계
필리핀	전화통신망확충	5.4	사업 완료
	2차 전화통신망 확충	10.2	사업 완료
	민다나오 송변전설비 확충	10.7	-
	루손 송변전설비 확충	14.0	-
	라곤딩간 공항개발	25.0	-
	남부 마닐라 통근철도(혼합신용)	35.0	-
	<b>6건</b>	<b>99.80</b>	
인도네시아	파당시우회도로 건설	13.5	사업 완료
	이동식직업훈련	25.0	사업 완료
	실업교육 개선	10.0	사업 완료
	마나도우회도로 건설	10.0	-
	칼리만탄지방병원 개선	30.0	사업 완료
	병원폐수처리시설	40.0	-
	동자바지방병원 개선	30.0	-
	<b>7건</b>	<b>158.5</b>	
베트남	Thien-Tan 상수도	26.0	사업 완료
	Thien-Tan 상수도(보충)	7.0	-
	18번국도 개량사업	24.0	사업 완료
	바리아 발전설비 구매	49.0	사업 완료
	바리아 발전설비 구매(보충)	7.4	사업 완료
	백신생산공장 건설	28.5	-
	고체폐기물 처리	19.6	-
	<b>7건</b>	<b>161.46</b>	
미얀마	전화통신망 확충	7.8	사업 완료
	송배전망 확충	16.8	사업 완료
	콘테이너야적장 건설	15.0	사업 완료
	철도차량 구매	20.0	사업 완료
	B형 간염백신공장 건립	12.6	-
	<b>5건</b>	<b>72.2</b>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구축	20.0	-
	직업훈련원 건립	26.67	-
	도로개보수사업	17.05	-
	<b>3건</b>	<b>64.72</b>	
<b>합 계</b>	<b>28건</b>	<b>557.18</b>	

자료: 수출입은행

〈표 4-6〉 한국의 對중국 EDCF 공여 현황(~2003년)

사 업 명	금액(백만 달러)	추진단계
지린성연길상수도건설사업	9.00	사업 완료
랴오닝성한중국제교류센터사업	5.00	사업 완료
후난성통신망건설사업	17.00	사업 완료
허둥공항 건설사업	5.50	사업 완료
폐기물처리시험사업	2.50	사업 완료
종합농업개발사업	20.00	사업 완료
간쑤성 우웨이시 상수도 건설사업	4.95	사업 완료
무단강 고속도로 건설사업	15.00	사업 완료
쿤밍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5.00	사업 완료
쓰촨성 댜약공항 건설사업	15.00	사업 완료
헤이룽장성 모단강 고속도로 건설사업	32.00	-
네이멍구 생태환경 개선사업	4.98	사업 완료
허베이성 톈진-바오딩 도로사업	20.00	-
간쑤성 농업교육 설비사업	2.00	-
상하이시 입체주차장 건설사업	2.52	-
충칭시 팡수 도로건설사업	4.95	사업 완료
안후이성 광덕 상수도건설사업	4.50	사업 완료
4개 성 벼농사 기계화 조성	25.00	사업 완료
Korla시 외부순환도로 건설	10.00	사업 완료
<b>19건</b>	<b>237.90</b>	

자료: 수출입은행

## 참고자료

- 권율·정재완·권경덕. 2003. 9. 『ASEAN+3 역내 주요 이슈 파악 및 협력사업 검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정재완. 2004. 10. 「캄보디아 신정부의 경제개발전략과 WTO 가입」 『KIEP 세계경제』,  
제7권 제10호 제73호. KIEP.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한국수출입은행.
- KOTIS.
- ADB. 2004a.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April)*.  
—— 2004b. *Asia Economic Monitor 2004 (July)*.
- EIU. 2004a. *Country Outlook, 2004 (July)*.  
—— 2004b. *Country Report: Myanmar (August)*.
- GlobalInsight. 2004a. *Monthly Outlook 2004 (August)*.  
—— 2004b. *Asia-Pacific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3Q 2004 (July)*.  
—— 2004c. *World Overview: Second Quarter 2004*.
- IMF. 2004.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June)*.
- UNCTAD. 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July)*.
- WTO.

## Executive Summary

###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the ASEAN+3(China, Japan and Korea)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Korea

Jae-Wan Cheong, Wanjoong Kim, and Kyoung Doug Kwon

ASEAN+3 consist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The population in the region is more than \$2 billion, about 32% of the world population, and total GDP is \$7 trillion, about 19.3% of the world GDP in 2003. Trade value of the region is \$3 trillion, 20.8% of the world trade value. Thanks to economic recovery, China's growth and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export oriented economic policy in the region, the trade portion of the region to the world trade is increasing.

East Asian economies has recovered after Asian crisis. The Japanese economic recovery has escaped from the "lost decade" and China is in high economic performance, despite unfavorable external factors like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followed by September 11 and SARS. ASEAN also succeeded in riding the up cycle of economic growth, due to intra-trade expansion after AFTA launching, agricultural sector's boom and increasing demand of IT products.

With the Socialist countries' opening to the world, they can seek economic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spite of high economic performance and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cause ASEAN to have a common sense of regional cooperation. At 30th anniversary of ASEAN, ASEAN invited from China, Japan and Korea to its summit meeting. From that time ASEAN+3 summit was formulated.

In spite of its short history, ASEAN+3 summit plays a key role in institutional building. Also the ASEAN+3 Ministerial meetings provide opportunities to discuss real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SEAN+3 region's share in Korea's total trade value is about 40%. Particularly, Korea's trade value with China increased by 30.4%, 38.5% in 2002 and 2003, respectively. China became the second big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Korea's trade value with ASEAN is \$ 38.7 billion, 11% of Korea's total trade in 2003. ASEAN is the fifth biggest trading partner for Korea. Furthermore, ASEAN +3 has an abundant labor force, natural resources and huge market, which are great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Many of Korea's private companies have invested in China and ASEAN.

Economic cooperation among ASEAN+3 in the governmental level is also important. 21% of total grant of Korea is allocated to the region. \$ 815 million of EDCF fund support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 鄭在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객원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jwcheong@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ASEAN FTA의 타당성 검토』(공저, 2002)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공저, 2003) 외

## 金完仲

서울시립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뉴욕주립대(SUNY AT ALBANY)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wj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Dynamics of Employment and Real Exchange Rates in Three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2004)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s and Competitiveness Relation in East Asian Export after Currency Crisis”(1999) 외

## 權耿德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kdk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공저, 2003)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2003) 외